디지털시대의 리더,

「e-Z Driver」 포스데이타

올해로 창립 12년째를 맞고 있는 포스데이타는 현재 1,000여명의 전문인력에, 자본금 3백8억원의 기업이다.

2000년 11월 코스닥에 등록했으며, 현재 분당에 데이터센터와 본사를 두고, 포항, 광양, 서울 등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693억원, 경상이익 166억원을 달성, 창사이래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매출액은 49%, 경상이익은 155%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영업이익율도 지난해 4.0%에서 6.3%로 크게 높아져 내실경영체제를 확실히 다졌다.

포스데이타 사업은 크게 SI, NI, 아웃소싱, DVR사

업, 인터넷 등 e-biz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스데이타는 철강 및 제조, 공공기관, 통신 및 유통서비스 분야 정보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철강 및 제조분야 정보화에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포스데이타가 그동안 철강 · 제조분야에서 정보화를 수행한 기업으로는 현대강관, 동부제강, 한보철강, 동국산업, 강원산업, 창원특수강, 한국타이어 등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 포스데이타의 노하우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청와대를 비롯한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특허청, 성남시, 포항시, 조선일보,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수많은 기관의 정보화를 추진, 국가 정보화에 앞장서 왔다.

S/W 제작지원툴, 개별단위 솔루션까지 컨설팅 총 망라

포스데이타는 해외사업도 매우 활발해 그동안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이집트, 중국 등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에는 국내 업계 최초로 인도 타타 제철소에 정보기술 컨설팅을 수출해 국내 정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포스데이타는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 최초의 철강생산관리 패키지인 「STEELPIA」, 철강 인터넷 EDI/EC시스템인 「EC-MASTER」, BPR방법론인 「POS-BPR」, 객체지향방법론 「POS-OODM」, 디지털 영상감시시스템인 「POS-Watch」, S/W 제작지원 툴 「EasyTier」, 설비관리시스템 「EasyFM」, 엔드유저용 통계분석 툴 「Infominer」, 중소기업용 ERP패키지 「POS-ERP」 등 다양하다. 컨설팅에 필수적인 방법론에서 부터 S/W 제작지원 툴, 개별 단위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STEELPIA」는 세계 유일의 철강 생산관리 패키지 S/W로, 지난해 인도 ISPAT제철에 단건 수출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3백만 달러에 수출하기도 했다. 「STEELPIA」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셈이다. 「EC-MASTER」 또한 세계 최초로 Web EDI, Mail EDI, FTP EDI를 통합한 솔루션으로 '99년 10월 런던에서 열리는 CALS/EC International '99에 관련기술이 발표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POS-Watch」는 Non-PC형 디지털 영상감시시스템으로 지난해 산자부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회 한국밀레니엄상품전에서 2000년 한국 밀레니엄 상품(KMP:Korea Millenium Product)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산업기반기술 부문 우수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그 기술력과 제품 신뢰성에 대한 대내외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일본과 유럽에 각각 1천5백대, 1천대를 수출한데 이어, 올해에는 중국, 호주, 남미 등에도 진출할 계획으로 있다.

포스데이타는 올해 선택과 집중의 영업전략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포스데이타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은 공공분야 SI사업과 해외사업, 그리고 e-비즈사업.

공공부문 사업은 포스데이타가 지난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가 있었던 분야로 앞으로 전자정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점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기존의 보건복지, 국민연금, 국방, 행정 등의 분야이외에 지방자치단체, ITS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통사업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미 경남 기계산업정보화 프로젝트 등을 수주, 년초부터 공공부문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인터넷 등 신사업 및 첨단기술 개발부문 적극투자

해외사업은 국내 시장을 대체할 중요한 시장으로 포스데이타는 지난해에는 인도,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대련 포금강판 생산관리시스템, 한국타이어 가흥/강소 공장 생산관리 시스템 등의 프로젝트를 수주,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진출국가는 물론 사업분야도 철강중심에서 공공, 의료 등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가 국책과제로 추진중인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프로젝트에 참여함은 물론 중국, 베트남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틸피아, DVR인 포스워치 등 자체 개발 솔루션에 대한 해외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과 해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연말 SK C&C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공동 마케팅과 영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GIS, e-비즈, DVR 등 고수익, 고성장의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IS는 지난해 개발에 착수한 3차원 웹 GIS 솔루션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환경관리(EIS), 시설물관리(FMS), SCADA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포스코 PI(Process Innovation)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여기서 배출된 5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ERP, SCM 등에 대한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포스데이타는 e-비즈 분야 사업으로 e-Marketplace, 디지털 시티 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철강 CALS/EC와 건설 CALS/EC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 시티사업으로 포스데이타는 현재 포스코가 운영하는 포항·광양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서비스인 포스타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앞으로 지자체 및 지역기관과 연계하는 한편 서비스 지역을 포항, 광양에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데이타는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등 신사업 및 첨단기술 개발부문에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 국내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분당 사옥을 데이터 센터와 교육센터, 소프트웨어 솔루션 센터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S/W 솔루션 센터의 경우 해외 유수 S/W 업체와의 제휴 또는 인수를 통해 우수 S/W를 개발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포스데이타는 서구식 완전 연봉제, 스톡옵션, 사내 벤처 소사장제, 영업 대표제 등 선진제도를 도입, 인터넷 환경에 맞는 e-Culture 창달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는 포스데이타가 수행하는 사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으로, 직원들의 창의력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데이타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복장은 물론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한능률협회컨설팅에서 선정한 2000년 기업문화 대상 활동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포스데이타는 전문가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내기술대학원을 설립, 전문가 양성과정인 POS-SEC(POSDATA Senior Engineer Course), POS-JEC 를 비롯해 컨설턴트 양성과정, 정보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사양성과정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포스데이타는 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내 SI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탁구팀을 창단하기도 했다.

포스데이타는 이러한 사업 및 기술전략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SI전문기업으로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이사
김광호(金光皓)

김광호 사장은 1943년 생으로 충무상고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고려대 정보통신 최고위 과정과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1969년 포항제철에 입사하여 88년 경안실업(현 포스틸) 부사장을 거쳐 다음 해 포항제철 상임감사, 92년 제철학원 전무이사, 95년 포철산기 부사장을 거쳐 97년부터 지금까지 포스데이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물론 한국시스템통합연구조합, 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 이사장 직을 맡고 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 정보산업연합회 등의 이사직과 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직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김광호 사장은 철저한 내실위주의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김 사장은 포스데이타를 수익위주로 경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선택과 집중'이란 모토 하에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김 사장은 포스데이타를 세계적 수준의 SI전문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하나 하나 실천해 가고 있다.